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의 방향

최 용 재
(동국대학교)

Choe, Yong-Jae. (1998). How to improve the level of communicative competenc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4, 39~51.

This paper aims at implementing a new program designed to improve the level of communicative competence of Korean learners of English. For this purpose, the most important issue to be resolved is defined first. Then, a brief survey of the literature on the nature of communicative competence. Next,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re added in because they are thought to be the keys to success. Lastly, the main teaching points are presented to ensure the success. The paper as a whole is a presentation of a new program for a better communicative competence. The new program is nothing other than actual communicative practice which ensures an authentic interaction.

1. 영어교육의 당면과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라고 하면, 의사소통능력을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고 이미 있는 능력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영어능력이라도 이미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은 입학시험의 합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습자의 언어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관심 밖의 일이다. 영어를 전혀 모르는 한이 있을지라도 주로 선택형 시험에 의하여 선발되는 시험에서 이른바 “찌기”만 잘 하면 성공하는 추세이다. 다른 교과목도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자연히 우리의 영어

교육은 선택형 문제풀이의 선수를 길러내는 것이 장기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이다. 이런 추세에서 갑자기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주문을 받게 되면, 뭔가 새로운 방향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에 새로운 방법이란 없고, 고금을 통하여 정도를 밟는 것이 최선책이다.

중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이 유창성을 강조하고 나서자,¹⁾ 교육의 현장과 사회에서는 영어회화의 유창한 구사능력이 영어교육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되었다. 더구나 유창성과 더불어 의사소통능력을 부쩍 강조하게 되었다. 회고해 보건대 무릇 언어교육의 본령이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이 아닌 적이 없었지만, 지난날에는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확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로 언어교육의 진정한 목표를 잠시 잊고 있었다.²⁾ 그런데 이제 다시 의사소통능력을 강조하게 되어 언어습득의 목적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러나 유창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정확성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만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상태를 실현시키려는 노력이 올바른 영어교육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는 영어교육에서 “의사소통능력”이라는 말만 하면,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효과를 낼 듯한 착각에 빠져 있다. 더구나 대학에서까지 교양영어를 영어회화 위주로 바꾸어, 이른 바 English native speaker를 쓴다는 미명하에 자격 미달자까지 모아다가 수업을 맡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의 근거로는 “native speaker처럼 유창하고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한 본으로” 그들을 고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native speaker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영어능력도 상대적이고 사람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의심스

- 1) 「제6차 중등학교 교육과정 외국어(영어)」에서 정확성보다 유창성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
- 2) 언어교육은 언어를 통하여 의사를 소통하는 것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언어를 안다는 의미가 문법적 정확성의 확보에 있는 것처럼 이해되었다. 언어학습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어를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방면의 일은 학습자의 능력껏 해결하도록 맡겨 두고 있었다.

러울 때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도움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의사소통능력의 실체부터 먼저 정확하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영어회화능력이 한 사람의 의사소통능력을 모두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것 인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마다 가장 자신이 있고 요령이 있는 관심분야가 있고 언어 기능이 있게 마련이다. 더구나 가장 일반적인 내용의 언어구사라고 할지라도 사석에서의 잡담이나 담화와 공식에서의 격식을 갖춘 언급이나 견해의 피력에는 서로 차이가 있겠고, 소집단과 대집단의 차이 또한 있을 수 있겠다. 더욱이 영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내보인 의사소통능력이 다른 환경에서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만일 이런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의사소통능력을 고르게 발전시키려 했던 전통적 가치관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요즈음 들어서 대학에서 거의 병적으로 유행하는 영어회화 일변도의 수업형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음성언어가 먼저이고 문자언어가 다음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음성언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골고루 균형이 있게 가르치는 입장을 버릴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의 방향”을 논하려고 하므로, 먼저 영어교육의 목표로서 의사소통능력을 정의하고, 다음으로 지도의 실체를 개관한 뒤에, 마지막으로 지도의 주안점을 다루고 한다. 목표를 올바르게 세우지 않고는 교육방법론을 제대로 정립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목표가 일단 설정되면, 교육의 방법은 그 뒤에 저절로 구상될 수가 있다.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교육방안이라고 해 보았자 이미 논의되거나 실행되고 있는 것들에 불과하겠지만, 지도의 주안점에서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겠다. 목표가 분명하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듯이, 우리의 영어교육도 시류를 타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앞서야 할 것이다.

II. 의사소통능력의 정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의사소통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을 가장 좁은 의미로 정의한 이는 Davies (1989)이다. 그에 의하면, 의사소통능력은 언어규칙의 사용이라고 좁혀서 말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상투적인 언어교환 (pathic expression)에 관한 지식과 유창성의 제어라고 한다. 상투적인 언어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규칙과는 별개로 “Good morning? How are you? How do you do?” 등과 같이 특별한 의미가 없어 사회적 의식에 의하여 교환하는 상투적 표현들이다. 한편 유창성의 제어는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기능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보면, Davies의 주장은 종래의 언어능력 속에 규칙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상투적 표현들과 언어구사의 역동적 측면을 모아서 언어능력과는 별도의 능력으로서 의사소통능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 의하면 언어에 관한 능력은 언어능력과 이를 보완하는 의사소통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의사소통능력 자체만으로 볼 때, Davies의 주장은 막연히 유창성만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유창하지 않은 언어구사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으로 Taylor (1988)가 있는 바, 그는 많은 학자들이 의사소통능력을 “수행하는 능력” 또는 “의사를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와 같은 막연한 주장들은 어느 모로 보든지 의사소통능력을 올바르게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와는 다르게 Wiemann & Backlund (1980)의 경우에는 서로 의존하는 양상들로서 인지적 과정과 행동적 과정 (cognitive and behavioral processes)을 의사소통능력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한 발 앞선 주장을 내놓았다. 물론 인지능력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Taylor나 Davies도 언어규칙을 조작하는 실체로서 어떤 능력을 묵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Wiemann들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이 모두 인지능력을 의사소통능력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의사소통능력이 위와 같은 능력뿐만 아니라 지식도 포함한다고 주장

하는 이들이 있다. Gumperz (1982)의 경우에 의사소통능력은 문법과 문맥화를 포함한다고 하여, 언어능력까지를 다 포함하면서 Chomsky식의 언어능력을 문맥 또는 상황에 알맞게 하는 능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Bialystok (1982)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가 강조하는 바는 맥락 또는 상황이다. Horwitz (1983)는 제이 언어에 국한되는 언급이지만, 진정한 의사소통능력이란 상황과 문화를 고려한 언어의 구사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Gumperz나 Bialystok 그리고 Horwitz가 들고 있는 맥락, 상황, 상황적 요구, 문화적 기준 등은 이에 관한 지식은 의사소통능력의 일부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 지식이 없어서는 그에 비추어 올바르게 언어를 구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더욱 명쾌하게 주장한 사람은 Savignon (1983)이다. 그는 의사소통능력에는 문법능력 (grammatical competence = sentence level grammar rules), 사회언어능력 (sociolinguistic competence = social rules), 담화능력 (discourse competence = interactive discourse), 전략능력 (strategic competence = compensation of imperfect knowledge of rules) 등의 네 가지 구성요소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보다 한 발 더 나간 사람은 Canale (1983)로 Savignon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수용하면서 이런 능력들이 지식과 기능의 다른 체계, 예를 들어 세상살이의 지식과 기술 같은 것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 두 사람의 주장을 보면, 의사소통능력 안에 언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능력을 다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보인다. 이들이 말하는 문법능력은 Chomsky의 언어능력과 다를 바가 없고, 사회언어능력과 담화능력 그리고 세상살이의 지식과 기술 등은 Hymes (1972)가 말하는 언어사용의 능력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략능력은 그보다 상위의 어떤 능력이나 질서로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살펴 본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의사소통능력은 정적인 전통적 언어능력에 역동적인 능력을 첨가함으로써 언어구사를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 역동적 능력은 우선 언어를 사용하는 어떤 능력으로 이해가 되는데, 의사소통능력이 오직 이것 만이라면 아직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Chomsky의 수행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런 협의의 의사소통능력은 Hymes의 사용규칙을 다 포함하지 못하므로, 언어사용의 맥락이라든가 상

황의 이해 그리고 문화적 이해를 더하고도 부족하여 세상살이의 지식과 기능을 더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의사소통능력은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고려점 등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을 위하여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자원 (language resources)을³⁾ 모두 동원해야 된다. 인간의 언어활동을 문제해결의 일부로 본다면 이 문제해결에 쓰이는 모든 요소들의 저장소가 바로 언어자원이므로, 인간의 사고와 언어작용 모두를 판장하는 능력까지를 합한 것이 의사소통능력일 것으로 생각된다.

III.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한 지도방법

의사소통능력의 실체가 드러난 지금, 이를 효과적으로 기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교수방법론을 다룬 책이나 논문에서 너도나도 이른바 의사소통을 위한 교수방법 (communicative teaching)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도무지 참신하지를 않아서, Kelly (1969)가 “..... much that is being as revolutionary in this century is merely a rethinking and renaming of early ideas and procedures.”라고 말한 바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좋은 예로 영국과 유럽의 전통을 들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수방법을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그 내용은 문법을 골간으로 하는 structural syllabus를 학습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notional-functional syllabus로 대체한 것으로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notional-functional syllabus라는 것이 structural syllabus에서 다루었던 문법에 “의미”와 “기능”을 더한 것에 불과하다.

종래의 syllabus에 새로 첨가된 개념인 “의미”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기능”은 문법의 쓰임새라고 이해된다. structural syllabus에서도 의미와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에서는

3) 언어자원은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간적 요소의 모든 것이다. 순수한 언어 요소들 밖에도 비언어적 요소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 (nonverbal communication)도 이에 포함된다.

의미와 기능을 유난히 강조하여 한 마디를 배우면 이를 실제 현장에서 당장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의미와 언어기능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일이다. 사실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규수업을 통하여 모두 다 가르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인간이 언어로 수행하는 기능 전체를 쉽게 한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의 정수가 무엇일지를 정의하는 일조차 어려운 상태이고, 구체적 실천방안도 애매할 따름이다. 이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자들의 이론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Chomsky의 이론이 영어교육에 혁명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했던 때를 상기해 보면, 이론과 실체가 어긋날 수도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수업의 예를 보더라도 *structural syllabus*에서는 문법항목들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제시하여 수업의 진도를 조절하였으나, *notional-functional syllabus*에서는 의미를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문법항목의 체계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 대신에 어떤 의미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표현하는데 이용되는 모든 문법적 표현을 동시에 교습할 수 있어서 종합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notional-functional syllabus*에서는 문법항목 대신에 의미의 항목이 새롭게 등장하여 체계는 없지만 한 번에 하나씩 교습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법항목을 의미항목으로 대체한 효과에 지나지 않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문법항목은 어느 정도 유한하지만, 의미항목은 그 수가 사실상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이론상으로는 우수할 것 같은 *syllabus*가 실제로는 별것이 아님을 스스로 들어내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학자들은 *communicative syllabus*의 형태만 제시하고 있을 뿐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검증되지 아니한 추상적 이론을 희망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학자에 따라서, (1) *structures plus functions*, (2) *functional spiral around a structural core*, (3) *structural, functional, instrumental*, (4) *functional*, (5) *notional*, (6) *interactional*, (7) *task-based* (8) *learner generated* 등의 *syllabus*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learner generated syllabus를 실천하고자 할 때는, 학습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일일이 물어서 실천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끝없는 조사와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는 지금 우리의 정규교육에서는 실천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은 “Idea is noble, but……”이란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교수법 교과서 저자들은 공허하나마 이런 식의 이론을 늘어놓고 있는 바, 이들이 늘어놓은 이론을 몇 개 들어보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겠다. meaning, functional dialog, contextualization, communication, translation, learning through communication, teacher as a counselor, fluency and acceptable language 등이 늘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한 영어교육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수방법은 교사와 학생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로는 정규교육에서나 비정규교육에서나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다. 법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상적인 수업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은 입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어서 배우고 가르칠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런 점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이 가능한 방법의 모색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 과제이다.

교육과정상으로 볼 때, 교육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만, 방법론은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실천방안은 교과서 저자나 교사의 몫으로 남아 있다. 오늘까지의 수업을 보면, 학습자 개인의 수준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지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제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학습자의 수준에 알맞은 syllabus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은 아직 의미 위주의 교육이라거나 문법체계에 의한 교육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문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피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의미 위주나 의사소통기능 위주의 방법론이 이론과는 다르게 실제에서 위력을 크게 떨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지금이야말로 영어교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크게 요구되는 시기이다. 특

히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반드시 실제로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소통의 형식이나 도구가 음성언어이건 문자언어이건 학습자의 능동적인 연습을 유도하는 학습활동을 통하여서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 널리 퍼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가 유창성의 보장과 의미 중심의 교육이므로, 문법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법이 없는 유창성이 가능하며 문법을 무시한 의미의 전달이 가능한가를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문법은 모든 언어행위의 근본이므로 결코 경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structural syllabus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기초가 되는 문법의 습득은 연습을 통하여서만 완성되므로 설명에 의한 연습보다는 실질적 참여를 통한 연습이 위주가 되는 학습활동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의 방향 또한 같은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IV. 지도의 주안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인식해야 할 일은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의사의 전달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전달되는 의사의 상호교환이라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영어교육에서 암기라는 단순작업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교사가 열심히 지껄이는 내용을 귀담아듣거나 교사가 읽어주는 대로 따라서 읽는 것이 고작인 교육을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불려왔다. 우리는 이런 식의 교육을 이제는 버려야 하겠다. 교사가 제공하는 내용을 학습자들이 무조건 수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물론 주입식 방법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소통능력은 강의를 통하여 길러지지 않고 실천을 통하여서만 습득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다. 의사소통의 요령을 안다는 것과 이를 실제로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의사소통능력은 어쩌면 시행착오를 통하여서만 습득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언어의 사용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관건이라면, 우리의 여건에서는 도무지 엄두도 못 낼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문제 풀이식의 교육에서도 선다형

의 문제처럼 답을 여러 개 미리 주어놓고 그 가운데서만 선택케 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정답을 생각해 낼 수 있게 하면 될 것이다. 이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것은 단답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학습활동 가운데 쉬운 것으로는 대체연습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방법의 요체는 주어진 답지를 놓고 그 가운데서 학습자에게 정답을 골라내게 하는 식이 아니라, 학습자가 정답으로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아무리 짧은 답일지라도 학습자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라면 심분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주어진 문제와 답을 놓고 눈치껏 골라내는 눈치학습이 아니라,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적극적 반응을 하게 하는 살아있는 의사소통을 체험케 하는 체험학습이다.

물론 이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단순한 정답의 선택에 지나지 않았던 학습을 지양하고, 학습자 스스로 전력을 다 하여 정답을 창안해 내도록 하는 것은 창의적 노력을 일깨우는 일이므로 학습효과가 지대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정답 찾기에서 정답 만들기로 전환한다는 것은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된다. 정답 찾기에서는 학습이 어느 것이 정답일가를 추측해내는 일종의 인지활동으로 끝나지만, 정답 만들기에서는 인지를 넘어서서 표현을 위주로 하는 학습활동이므로 더욱 어려워하면서도 학습자에게는 언어사용의 경험을 간접적이거나 쌓도록 해준다.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은 언어의 사용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언어 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좋은 교수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하는 지도방법은 지금의 획일적 교수방법보다 더욱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능력별 학습에서는 동료에 대한 경계심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이므로, 수업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무릇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의 요체는 최소한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거나 파악하고 자기가 뜻하는 바를 상대방이 알아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의사의 전달 수단이 언어이건 비언어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주제이므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관심사일 뿐이다. 또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언어만큼 세련되고 효과적인

것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유창성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을 기초로 한다. 언어의 정확한 구사는 문법에 의존하고, 습득한 언어조작능력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함으로써 숙달하게 된다. 물론 유창성이 없으면 때로 낭패를 볼 수 있지만, 의사소통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정확성에 있다. 다시 말하면, 언어학습의 최종목표는 세련된 언어구사에 있으므로 언어기능을 숙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숙달을 위한 배려이다. 원래 숙달이란 이미 배운 바를 익히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실제 대화를 통하여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능력의 첨가도 중요하므로, 새로운 언어적 요소를 습득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방법론적으로 볼 때, 역시 실제 상황이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언어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극화와 같은 경직된 분위기의 통제된 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비격식에 의한 언어자료의 제시와 자유로운 연습만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

그러면 언어숙달을 위한 연습에서 유창성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유창성은 항상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와 연계되어 있다. 의사소통의 궁극적 목표가 문자 그대로 “의미의 전달”이므로 언어구사가 좀 서투르더라도 유창하게 의사를 전달하기만 하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때 중요한 것은 전달된 내용의 정확도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대충 전달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관광객을 위한 의사소통의 수준이다. 때때로 상거래처럼 언어구사가 유창하지 않더라도 의사의 정확한 전달이 중요하다. 바로 이 점이 언어구사의 정확도를 염두에 둔 숙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결국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정확도를 보장하도록 하면서 유창하게 되도록 숙달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은 음성언어이건 문자언어이건 실제 상황에서 훈련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의사소통은 인간의 언어자원을 송두리째 이용하므로,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하여서는 언어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최선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확인하였다. 구체적 지도방안의 일환으로 입시위주의 수업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 방법을 표본으로 서술했다. 어떤 도움이 될지는 알 수가 없으나, 적어도 이런 정신의 바탕에는 언어의 기본적 소임을 다시 깨닫도록 하려는 기대가 들어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만 기를 수 있는 심리적 실체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언어의 사용은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을 뜻한다. 언어의 습득은 결국에는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의 축적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의사소통이 별거나, 언어를 사용하는 연습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각오가 필요하다.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의 방향은 이제 어느 정도 분명해졌다. 무엇보다 먼저 요즈음의 추세에 따르면 음성언어만을 중요시하여 영어회화 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지만, 문자언어도 의사소통의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다음으로 영어 구사능력의 유창성을 유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도록 실제 상황에서 숙달에 이르기까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특히 연습은 유창성을 기르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의하여 숙달에 도달하면 바로 유창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겠다. 또한 연습은 항상 실제 상황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극화나 암기된 대화에 의한 훈련은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몇 가지 조건이 바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어교육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ialystok, Ellen. (1982).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ing and using linguistic forms. *Applied Linguistics* 3(3), 181-206.
- Davies, Alan. (1989). Communicative competence as language use. *Applied Linguistics* 10:2, 157-170.
- Gumperz, John J. (1978).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rwitz, Elaine K. (1983). Reassessing foreign language aptitude: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ERIC ED 230 031.
- Hymes, Dell H.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and Janet Holmes (Eds.). *Sociolinguistics*. Harmonds, Middlesex: Penguin. 269-293.
- Kelly, Louis G. (1969). *25 centuries of language teaching*. Rowley, Mass.: Newbury House.
- Savignon, Sandra J. (1983). *Communicative competence: Theory and classroom practice*. Reading, Mass.: Addison-Wesley.
- Taylor, David S. (1988). The meaning and use of the term 'competence' in linguistics and applied linguistics. *Applied Linguistics* 9(1), 148-168.
- Wiemann, John M. and Backlund, Philip. (1980). Current theory and research in communicative compet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0(1), 185-199.